

6/12/22

설교 제목: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심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4 장 1-26 절

- (요 4:1)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절관주** 요 3:22
- (요 4:2)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 (요 4:3)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 (요 4:4)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 (요 4: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절관주** 창 33:19, 수 24:32
- (요 4: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 (요 4: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 (요 4: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 (요 4: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 (요 4: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 (요 4:11)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 (요 4: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 (요 4: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 (요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 (요 4:15)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절관주** 요 6:34

- (요 4:16)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 (요 4:17)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 (요 4:18)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 (요 4:19)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 (요 4: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 (요 4:21)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 (요 4: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 (요 4: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절관주** 롬 8:4, 빌 3:3
-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요 4:25)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 (요 4: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절관주** 요 8:24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계시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신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죽으실 때가 아니기에 불필요한 부딪힘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만나 당신이 누구인지 알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였던 것입니다.

- (요 4:1)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 (요 4:2)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 (요 4:3)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세례 요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보고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이라고만 언급한 것은 그들이 신헤드린 의회의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AD 70 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는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졌고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의 핵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부에, 유대 지역은 남부에, 그리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갔다다 다시 건너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면 3 일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저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6 일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으려 한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본래 이스라엘 땅이었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지정학적으로 교통의 요지였으며 지대가 주변 평지보다 100m 정도 높아 천혜의 요새 도시였기때문에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22 년 앗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정복국 앗수르는 남유대의 민족 혼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유대인들을 자신들이 정복한 타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타 정복지 민족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 서로 혼인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에 유대인들은 순수한 유대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고 종교적으로도 이방신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순수한 혈통을 유지한 남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이상 자기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에 대해 원한을 품게 되었고 서로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들 사이를 더욱 더 악화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전 재건 때의 일입니다.

BC 587 년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남유대인은 바벨로으로 끌려가 70 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남유대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성전 재건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지만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 사이는 더 깊은 적개심이 쌓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둘 사이의 관계는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지름 길을 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또 다시 시비거리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요 4:4)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결정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곳을 꼭 거쳐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불쌍한 한 여인을 만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버림받고 소외받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였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 이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흔 아홉 마리의 양 떼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요 4: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요 4: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이 땅은 야곱이 100 크시타를 주고 산 땅이었고 요셉의 뼈가 묻혀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잠시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요 4: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요 4: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인이 통명스레 대꾸합니다.

(요 4: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당신에 대해 계시해 주십니다

(요 4: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요 4:11)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요 4: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요 4: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요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여인이 구하기만 하면 도리어 당신이 생수를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물을 말씀하고 계신데 반해 여인은 니고데모처럼 물리적인 물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야곱의 물과 당신이 주는 생수를 비교 설명해 주십니다.
야곱의 우물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통해 영생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나 명예 자식 남편 건강 등등 땅의 것들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그것들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만이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리적인 물을 구합니다.

(요 4:15)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우리도 주님께 세상적인 것들만을 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영원한 생명 곧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자극합니다.

(요 4:16)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요 4:17)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요 4:18)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꿰뚫고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이 평소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을 묻습니다.

(요 4:19)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요 4: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 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 중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물리적인 공간과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십니다.

(요 4:21)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 4: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요 4: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와 형식에 온통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장소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며 예배의 대상과 자신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합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 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게 예배를 통해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십니다.

(요 4:25)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요 4: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진리에 갈급해 한 밤중에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거듭나는 것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이 직접 불쌍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는 이 땅의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모든 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해 인간이 찾아 갑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 찾아 오셨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 직접 찾아 오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늘에 영광을 버리고 이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 Good News 를 전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더럽고 추한 인간을 만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온갖 더러운 죄들을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 영생복락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